

마약·비자금·배우들 MT...골라보는 재미 '쏠쏠'

넷플릭스와 티빙, 디즈니+ 등 OTT 도 추석을 맞아 영화, 드라마, 예능 등 다양한 콘텐츠를 마련했다. 우선 추석 연휴 가장 주목되는 콘텐츠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수리남'. 오는 9일 공개되는 '수리남'은 남미 국가 수리남을 장악한 마약 대부로 인해 누명을 쓴 한 민간인이 국정원의 비밀 임무를 수락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2011년 체포된 한국인 마약상 조모 씨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작품으로 배우 황정민, 하정우, 박해수, 조우진 등이 출연한다.

수리남으로 향한 사업가 강인구(하정우 분)는 자신의 흥여 사업을 코카인 운반에 이용하려던 한인 목사 전요환(황정민) 때문에 인생이 꼬이게 되고, 국정원의 작전대로 코카인 밀수업자로 위장해 전요환에게 접근한다.

희대의 사기꾼 전요환은 자신을 따르는 신도들을 코카인 유통에 이용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다. 코카인에 중독돼 전요환을 신처럼 섬기는 신도들의 기이한 광기는 극에 긴장감을 더한다.

'수리남'의 가장 큰 볼거리는 캐릭터를 맛깔스럽게 살려낸 배우들의 연기다. 당초 영화로 기획됐다가 8부작 시리즈로 제작이 확정됐고 다시 6부작으로 구성이 바뀌었다.

지난달 26일 공개한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 '서울대작전'도 추석연휴 무료함을 달래기 충분하다.

1988년 서울을 배경으로 한 '서울대작전'은 자타공인 최고 드라이버 동욱(유아인 분)과 친구들이

최고 권력자의 비자금 수사 작전에 투입되며 벌어지는 이야기다. 유아인 외에 고경표, 이규형, 박주현, 홍성우, 문소리 등이 출연한다.

영화에는 포니 픽업, 브리사, 콩고드 등 당대 서울에서 볼 수 있었던 올드카들이 등장한다. 멋에 죽고 멋에 사는 '뽕꾸뽕'은 지금 봐도 촌스럽지 않은 빈티지 스타일을 자랑한다. 미국 래퍼를 동경하는 우삼의 선풍으로 등장하는 올드스쿨 힙합은 강렬한 비트로 경쾌함을 한층 더한다.

청춘 배우들이 대거 출연하는 티빙 오리지널 예능 '청춘MT'는 9일 첫선을 보인다. 총 8회로 제작된 '청춘MT'는 드라마 '구르미 그린 달빛', '이태원 클라쓰', '안나라수마나라' 등에 출연한 배우들이 모여 연합 MT를 즐기는 모습을 담은 프로그램이다. 배우 박보검, 박서준, 지창욱, 김유정, 안보현, 권나라 등이 출연한다. 9일 오후 4시 1·2회가 동시에 공개된 후 16일부터 매주 금요일 1회씩 공개된다.

최근 퀄리티 높은 작품들을 선보이고 있는 디즈니+는 오리지널 예능 '더 존: 버텨야 산다'를 8일 공개한다. '더 존'은 연출된 공간 속에서 인류를 위협하는 8가지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 출연진이 힘을 합치는 버라이어티 예능으로 방송인 유재석, 배우 이광수, 소녀시대 유리가 출연한다.

술래잡기의 귀재 MC 유재석과 그와 케미를 자랑하는 배우 이광수 그리고 소녀시대의 유리가 레이스를 펼친다. '뎀남', '패밀리가 떴다', '범인은 바로 너!'를 연출한 조원진 PD가 연출을 맡았다. /김민석 기자 mskim@

넷플릭스·티빙·디즈니+ '장르 풍성'



넷플릭스 '수리남'·'서울대작전'
티빙, 배우 박보검·김유정 '청춘MT'
디즈니+ 예능 '더 존: 버텨야 산다'



왼쪽 위부터 '수리남', '서울대작전', '더 존: 버텨야 산다' '청춘MT'.

자연 다룬 책으로 '힐링의 시간'

예년과 비해 다소 빠른데다 경제 상황도 좋지 않지만 마음만은 풍성한 추석명절이다. 이번 연휴에는 모처럼 자연을 주제로 한 책을 읽는 것은 어떨까. 자연과 함께 쉼을 얻고 힐링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책을 소개한다.

▲경이로운 자연에 기대어(레이첼 카슨 외 지음, 민승남 옮김)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문제에 대해 생태학자, 조경가, 농부, 시인, 철학자 등 21명이 지구를 위해 한목소리를 냈다. 책 제목이 암시하듯 인간이 자연에 의지하고 자연과 하나되는 삶을 추구해야 한다는 당위를 담고 있다. 저자는 해양생물학자이자 작가이며 환경보호 활동가인 레이첼 카슨을 비롯해 진화생물학자 데이비드 해스켈 등이다.

책의 시작은 미국의 사상가 랠프 월도 에머슨의 '자연'에서 비롯됐다. 책을 관통하는 주제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자연은 하나의 언어이며 우리가 새롭게 배우는 사실은 모두 하나의 새로운

말이다. 하지만 그것은 사전 속에서 해체되고 죽는 언어가 아니라 가장 중요하고 보편적인 의미로 통합되는 언어다. 나는 이 언어를 배우고 싶다."
(작가정신·1만3000원)

▲나무의 긴 숨결(페터 볼레벤 지음, 이마옥 옮김)
기후 변화에 직면한 나무와 숲 위기를 조명하는 동시에 나무라는 존재의 가치와 역할에 초점을 맞췄다. 독일 출신으로 '숲 사용 설명서', '자연의 비밀 네트워크' 등을 펴냈던 저자 페터 볼레벤은 온실가스를 줄이는 가장 중요한 일은 나무를 심고 가꾸는 데 있다고 강조한다. 어떤 기술과 노력보다 뛰어난 효과를 창출한다는 것.

그러나 흥미로운 사실은 나무는 인류를 위해서가 아닌 자신을 위해서 그러한 작용을 한다는 점이다. 물론 이러한 작용은 나무 종류에 따라 대응하는 양상이 다르고 같은 수종이라도 다르게 반응한다. 가뭄에 대처하는 나무의 모습을 보면, 나무를 일컬어 '지혜의 존재'라고 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 숲

의 운명과 인류의 운명은 직결되므로 오늘날 기후 위기는 인간과 나무의 관계를 돌아보게 한다.
(에코리브르·1만8000원)

▲매일 읽는 헨리 데이비드 소로(헨리 데이비드 소로 지음, 부희령 옮김)
소로는 노예제도와 멕시코 전쟁에 반대해 인두세 납부를 거부하다 투옥됐으며 당시 경험을 기록한 '시민불복종'은 간디의 비폭력주의 운동, 마틴 루터 킹의 흑인 민권 운동에 영향을 끼쳤다. 그는 1845년 월든 호숫가에 오두막집을 짓고 2년 여 동안 살았던 작가이자 사상가, 철학자였다. 자연 속에서 자급자족의 삶을 살았던 그는 경험을 바탕으로 '월든'이라는 책을 썼다.

이번 책은 미국 노트르담대 영어과 교수이자 소로 연구 권위자인 로라 대소 웰스가 각 작품에서 중요한 문장을 발췌해 엮었다. "계절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라. 봄과 함께 초록으로 자라라. 가을과 함께 황금빛으로 익어라" 등과 같은 문장은 잔잔한 울림을 준다.
(니케북스·2만원)

▲나무 심는 CEO(고두현 지음)
미래 경영에 자연의 가치를 담은 생태인문 책. 시인이자 언론인인 고두현 씨는 경제성장과 사회적

Visualizing Nature
BEFORE AFTER NOW

성숙, 심신의 안식 등 자연이 펼쳐 낸 새로운 미래를 개인과 기업,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숙고한다. 책에 소개된 꽃과 나무는 옛시절을 떠올리게 할 만큼 아련하다. 아울러 나무와 꽃으로 대변되는 자연은 많은 이들에게 영감과 아이디어를 제공했음을 보여준다. 20세기 천재 전기공학자 니콜라 테슬라는 공원 아래를 거닐며 고대 시를 암송하다가 자기장과 교류 발전에 대한 아이디어를 떠올렸다고 한다. '파우스트'에 나오는 '날개가 있어 밤을 따라갈 수만 있다면'을 읊조리다가 '그래, 태양처럼 전류를 먼 곳까지 보낼 수 있는 교류발전기를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이 미쳤다는 것은 자연의 위대함을 일깨운다.
(더숲·1만7000원)

▲곤충박사와 함께 떠나는 기후변화 나비여행 (송근 지음)
나비는 저자가 가장 사랑하는 곤충이자 지구상에서 서식하는 생물 중 기후변태 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생물이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모습을 직접 관찰해 사진과 글로 담았다. '국가 기후변화 생물지표종' 100종과 30후보종 중 7종의 나비를 선정, 나비들의 변화 모습을 풀어냈다.

온난화의 기후앞잡이 남방노랑나비, 은빛 날개를 뽐내는 뾰족부전나비, 목향 따라 천리 길을 가는 먹그림나비, 독수리처럼 월북하는 푸른큰수리팔랑나비 등 이름도 이색적인 나비들의 사연은 기후변화에 얼마나 몸살을 앓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푸른들녘·1만7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회사 사정상, 매매

1. 대인동 156평, 신안동 176평
2. 상업지역, 오피스텔 허가 특
타용도 변경가, 위치 좋음
3. 현재, 주차장으로 이용중
4. 매매 - 평당 1300만원씩

문의. 010-3605-5000

투자하실분, 덕남동 임야

- 임야 200평, 지분매매
- 도시지역, 자연녹지, 그린벨트
- 도로접함, 개발호재 많음
- 기획부동산 물건 아님
- 매매 - 4400만원(조정가)

문의. 010-3605-5000